NEWS

AI-K농업의 향연…국제농업박람회 10월23일 개막

2025년 3월 31일 월요일

전남개발공사, 남악 오룡지구 시설용지 등 총 9필지 공급

전남개발공사(사장 장충모)는 남악신도시 오룡지구 택지개발사업의 도시지원시설용지 등 총 9필지를 공급한다고 3월 28일 밝혔다.

공사에서 공급하는 도시지원시설용지는 5필지이며 오룡지구 내 부족한 지원시설 건축이 가능한 용지로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및집회, 의료, 교육연구소, 운동, 업무, 숙박, 창고, 방송통신, 위험물처리시설 등으로 활용될 수 있다.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00%~400% 이하, 최고층수 5~10층 이하를 적용받는다.

블록형단독주택용지는 블록 단위 단독주택 건설용지로 아파트의 편리성과 단독주택의 쾌적성, 사생활 보호 등의 장점을 결합한 형태이며, 총 3필지에 대해서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150% 이하, 최고층수 3층 이하, 323세대 이하로 건설할 수 있다.

연립주택용지는 오룡지구 내에서 유일하게 85㎡초과 연립주택을 225세대이하로 건설할 수 있으며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80~100% 이하, 최고층수 4층 이하를 적용받는다.

대금납부 조건은 3년 무이자 할부로 공급하며, 계약금 10%를 제외한 중도금 및 잔금은 매 6개월 단위로 나눠서 납부가 가능하다. 이현규 기자 gnnews1@

▶1면 '의대생 제적'서 계속

전남대와 조선대는 제적 의대생 구제 방안은 없을 것이라고 공지해왔으며, 편입학 확대 등 의대생 대거 제적에 따른 별도의 충원 계획은 아직 마련하지 않았다.

지역 대학 관계자는 "복학을 신청한 학생 수는 유의미하지 않은 수준이다"며 "별다른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무더기 제적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광주지역과 달리 수도권을 비롯한 소위 '빅5' 의대에서는 의대생들의 복학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7일 서울대 의대생들이 전원 복귀를 결정한 데 이어 연세대와 성균관대, 가톨릭대가 '등록 후 투쟁'으로 노선을 선회했다. 고려대, 차의과대, 울산대, 충남대도 전원 복귀했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비수도권은 의정갈등의 핵심인 증원의 대다수를 배정받은 만큼 학생회의 입장이 수도권에 비해 강경하다"며 "또 애초부터 수도권 의대로의 진입을 노리는 비수도권 의대생들도 있어 복학이 압박으로 다가오지 않았을 것이다"고 전했다.

전남농업기술원서 진행
인공지능 기반 농업 혁신
농식품 수출활로 확장도

2025 국제농업박람회가 인공지능(AI) 기반 농업 혁신·케이(K)-농업 성장 견인을 목표로 오는 10월 23일부터 29일까지 7일 동안 전남농업기술원(나주 산포면) 일원에서 펼쳐진다.

국제농업박람회사무국은 이번 박람회를 기후위기 시대 속에서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모색하고 글로벌 농업 혁신을 주도하는 플랫폼으로 치를 예정이다. 특히 AI 기반 스마트팜, 농업 자동화 기술, 디지털 농업 솔루션을 통한 혁신 사례 등을 대거 선보인다. 농업과 첨단기술이 접목된 다양한 프로그램도 준비하고 있다.

행사장은 상생마당전, 농업미래전, 농업산업전, 비즈니스전, 힐링치유전으로 총 5개 전시관으로 운영된다. 전시를 통해 글로벌 푸드테크와 애그테크, 디지털 농업 솔루션 등을 접목한 혁신적 미래농업의 비전을 제시한다.

농업용 로봇과 드론, 자율주행 농기계, LED 광원을 활용한 에너지 절감 기술 및 스마트팜 등 다양한 혁신 기술이 전시될 예정이며, 관람객은 AI기반 농업 자동화 기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

특히 이번 박람회는 청년과 미래세대를 타깃으로 한 프로그램을 대폭 강화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청년창농마켓을 운영해 청년농부가 소비자와 직접 만나는 기회를 제공, 실질적 창농 및 정착을 지원하고, '투자 IR포럼'을 통해 투자자와 창농 기업 간 네트워크 형성 기회도 제공한다.

또한 K-농식품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는 비즈니스 행사 역할도 한다. 총 15개 나라 50개 해외 바이어를 초청해 수출 상담회를 할 예정이다.

국내 기업 간(B2B) 상담회 및 품평회도 함께해 농가의 실질적 판로 개척을 지원한다. 2800억 원 상당의 경제적 성과 달성이 목표다.

글로벌 농업기술 트렌드를 공유하기 위한 국제 학술대회도 열린다. 푸드테크와 애그테크 산업, K-농업기술 수출 유통과 농업기계 고도화 관련 여러 학술행사를 통해 국내외 농업 전문가가 최신 농업기술 트렌드를 논의하고 교류하는 장이 될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입장권 페이백 혜택을 도입해 사전 예매자에게 행사장에서 사용할 쿠폰을 제공함으로써 현장 소비를 촉진할 예정이다. 전남 주요 관광지 입장권과 연계한 할인 혜택도 마련해 관람객이 박람회 관람 후 전남을 여행토록 할 계획이다.

김행란 전남도농업기술원장은 "이번 행사는 'AI와 함께하는 농업혁신, 생명키우는 K-농업'이란 주제로 열려 대한민국 농업이 미래를 조망하는 중요한 행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장성 죽림저수지 시설하우스 침수 피해 현장방문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30일 장성 죽림저수지 인근 시설하우스 침수 피해 현장을 방문, 피해상황 등을 점검하고 시설 조속 복구 및 모내기 등 영농대책 마련을 지시하고 있다. 사진제공=전남도

정부 '10조 필수추경' 추진…산불·통상·내수 대응

긴급현안 경제관계장관간담회…"4월 국회 통과 여야 협조를"

정부가 30일 추가경정예산안 추진을 공식화했다.

영남권 중심의 동시다발적인 산불 피해를 복구하자는 '산불 추경'의 범위를 뛰어넘어 미국발 통상리스크, 내수 부진 등 대내외 악재에 대응하는 '필수 추경'의 컨셉트로 추진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긴급현안관련 경제관계장관간담회'에서 "정부는 시급한 현안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속하게 집행가능한 사업만을 포함한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경'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3대 분야로는 재난·재해 대응, 통상 및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을 제시했다.

최 부총리는 "산불로 약 4만8000ha(헥타르)에 이르는 산림 피해와 75명의 사상자 등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피해지역민들의 조속한 일상 복귀를 위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과 지원이 긴요하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대외적으로 미국 신정부의 관세 부과 등 통상리스크가 현실화하는 가운데 주력산업의 생존이 위협받고 AI 등 첨단산업 주도권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며 "내수 회복이 더딘 가운데 수출 둔화가 중첩되면서 서민·소상공인 취약부문의 민생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가진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기존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을 넘어 신속한 추가 재정투입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산불피해 극복, 민생의 절박함과 대외현안의 시급성을 감안하면 '필수 추경'이 빠른 속도로 추진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여야가 필수 추경의 취지에 '동의'해 준다면 정부도 조속히 관계부처 협의 등을 진행해 추경안을 편성·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4월 중으로 추경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여야의 초당적 협조도 거듭 요청했다. 연합뉴스

"작은 힘 보탠다"…산불 피해 지역에 온정

광주시·자치구, 구호기금…주먹밥 등 생필품 전달
전남도, 건강·안심버스 파견…헬기·소방인력 지원

광주·전남 각계가 대형 산불로 고통을 겪는 영남권 피해 지역 복구와 일상 회복을 위해 힘을 보탰다.

▶관련기사 6·15면

광주시는 지난 28일 경북과 경남에 각 1억원, 울산에 5000만원의 재해구호기금을 전달했다. 기금은 산불 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이재민 구호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광주 자치구도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경남 산청과 하동의 주민을 돕기 위해 나섰다.

동구는 4월 1일부터 10일까지 직원을 대상으로 모금활동을 펼치고 있다.

서구는 생필품을 위주로 구호물품을 모아 경북 영덕으로 보낸다.

구호물품에는 서구민들이 나눔과 연대의 5·18 정신으로 만든 500인분 주먹밥이 포함돼 따뜻함을 더한다.

광산구 공직자들은 매월 급여의 1만원 또는 1000원 미만 끝전을 자발적으로 모으고 있다.

앞서 북구는 지난 28일 대형 산불로 생활 터전을 잃고 임시 대피소에 거주 중인 이재민들을 돕기에 나섰다.

구호물품은 생수 5000개, 빵 2000개, 라면 315박스, 마스크 4만2000개, 담요 300개 등 5200만원 상당의 구호물품을 지원했다.

또 지난 27일부터 공무원과 주민을 대상으로 산불 피해 성금 모금에 나서고 있으며, 현재까지 모금액 3000만원을 돌파했다.

광주시의회는 의원 23명과 사무처 간부들이 모은 500만원을 대한적십자사에 기탁했다. 또 매일 왕복 4시간 이상 이동해 진화 작업에 투입되는 소방대원들을 위해 의회가 보유한 대형 리무진 버스를 지원하기로 했다.

전남도도 대형산불이 발생해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지역에 '전남건강버스'와 '마음안심버스'를 긴급 지원한다.

28일 출발한 버스는 산불에 따른 고온과 연기, 불안정한 환경 속에서 생활하는 경북 도민의 진료와 심리상담을 지원한다.

전남도는 앞서 지난 25일 울산 경북 경남 지역의 복구를 위해 재해구호기금 2억5000만원을 긴급 지원했다.

도는 경남 산청군과 경북 의성군 산불 현장에는 산불 진화 헬기 3대, 소방인력 118명, 소방 장비 24대 등을 지원, 진화를 도왔다.

전남 강진군 작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을 돕기 위해 전국재해구호협회에 100만원을 기부했다.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은 교육청·산하기관 직원, 일선 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산불로 피해를 본 지역 주민과 학생들을 위한 성금 모금에 나섰다.

한편 경남 산청군에서 발생해 열흘간 하동군·진주시·지리산국립공원까지 번지며 일대를 초토화한 산불이 이날 오후 1시를 기점으로 주불 진화가 완료됐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순천 도시첨단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공급 공고

1. 공급대상토지

연번	사업지구	공급용도	소재지	예정지번	면적(㎡)	공급예정금액(천원)	신청예약금	토지사용가능시기
1	순천 도시 첨단 산업 단지	산업 시설 용지	전라남도 순천시 야흥동	659-0	7,998	4,522,910	필지당 1천만원	2025.12.31. (예정)
2				660-0	7,781	4,400,190		
3				661-0	5,254	2,971,160		
4				662-0	5,209	2,945,720		
5				663-0	5,259	2,973,990		
6				670-0	1,545	873,710		
7				670-1	1,403	793,410		
8				670-2	1,440	814,330		
9				670-3	1,605	907,640		
10				670-4	1,960	1,108,390		
11				670-5	2,020	1,142,320		
12				670-6	1,590	899,160		
13				671-0	2,000	1,131,010		
14				671-2	2,093	1,183,600		
15				671-3	2,852	1,612,820		
16				671-4	2,177	1,231,110		
17				671-5	2,405	1,360,040		
18				671-6	3,343	1,890,480		

2. 공급일정 및 장소

구 분	일 정	장 소
입주사전심사 및 입주신청	2025.4.7.(월) ~2025.4.25.(금) (10:00~16:00, 주말·공휴일 제외)	전라남도 순천시 신성장산업과
분양신청 및 신청예약금납부	2025.4.21.(월)~2025.4.25.(금) (10:00~16:00)	LH 청약플러스(http://apply.lh.or.kr)
분양대상자 선정(추첨)	2025.4.30.(수) 14:00	LH 광주전남지역본부 판매팀(10층)*시스템 추첨
분양대상자 발표	2025.4.30.(수) 17:00	LH 청약플러스(http://apply.lh.or.kr)
입주계약체결	2025.5.7.(수) 09:00~5.14.(수) 15:00 (주말·공휴일 제외)	전라남도 순천시 신성장산업과
분양계약체결	2025.5.12.(월) 10:00~5.14.(수) 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LH 광주전남지역본부 판매팀(10층)

3. 입주자격 및 입주우선순위(전라남도 순천시 신성장산업과 확인 必: 061-749-4408)

가. 입주자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에 적합한 공장으로서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입주우선순위, 입주대상 산업 및 시설 등)을 갖추고 순천 도시첨단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적합한 업종을 유치하고자 하는 자로서 공급공고일 현재 입주대상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할 계획이 있고 본 산업단지 관리기관인 순천시와 입주계약 체결이 가능한 자에 한함
※ 전라남도 도보 제2024-28호(2024.6.27.) "순천 도시첨단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따릅니다.

나. 입주우선순위
□ 1순위 : 외국인 투자 기업 또는 국내기업 중 대규모 투자를 하는 기업
□ 2순위 :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목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유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순천시와 협약을 체결한 업체

다. 일반순위 : '나. 입주우선순위' 이외의 순천도시첨단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적합한 업종을 영위하는 자

4. 공급방법 : 추첨

※ 세부사항은 우리공사 LH청약플러스(http://apply.lh.or.kr) 공급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대금납부방법 : 4~5년 무이자 분할납부

대금납부조건	분할수납기간	계약금	잔대금 납부방법
공급금액 20억원 미만	4년 분할납부 (무이자)	공급금액의 10% (계약체결시)	공급금액의 90% (매 6개월 단위 8회 균등 분할 납부)
공급금액 20억원 이상	5년 분할납부 (무이자)		공급금액의 90% (매 6개월 단위 10회 균등 분할 납부)

6. 기타 유의사항 (신청 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가. 신문공고 내용은 대상토지 및 일정에 대해서만 간략히 게재하였으므로, 자세한 공고내용, 공급 토지별 지구단위계획, 인허가 조건사항 및 유의사항 등 세부사항은 우리공사 LH청약플러스(http://apply.lh.or.kr) 공급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대한 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공급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LH 광주전남지역본부 및 전라남도 순천시 아래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 의 처		
산업단지 입주신청 및 입주심사 문의	☎ 061-749-4408	전라남도 순천시 신성장산업과 전라남도 순천시 장명로 30, (장천동)
토지 분양신청 및 공급관련 문의	☎ 062-360-3175	LH 광주전남지역본부 판매팀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91 (치평동 1210)
공사계획 및 개발업무 관련 문의	☎ 061-721-2251	LH 광주전남지역본부 순천도청사업소 전남 순천시 야흥동
LH 청약플러스 이용(분양신청접수 등) 관련 문의	☎ 1600-1004	LH 콜센터

2025.03.31

LH 광주전남지역본부장